

2025.3Q 실적 요약

(단위:억원)

구분	2025				2024		2023		2022		2021	
	3Q	(성장률)	누적	(성장률)	3Q	누적	3Q	누적	3Q	누적	3Q	누적
매출액	7,582	(29.6%)	29,581	(18.7%)	5,851	24,920	6,073	29,152	7,108	26,371	4,070	16,291
매출원가	6,439	(21.2%)	24,810	(12.5%)	5,315	22,060	6,285	30,241	7,418	28,367	4,190	14,872
매출총이익(손실)	1,143	(113.2%)	4,771	(66.8%)	536	2,860	△ 212	△ 1,089	△ 310	△ 1,996	△ 120	1,419
판매비와관리비	249	(0.7%)	735	(2.2%)	248	719	232	697	265	782	254	764
영업이익(손실)	894	(209.6%)	4,036	(88.5%)	289	2,141	△ 444	△ 1,786	△ 574	△ 2,779	△ 375	655
당기순이익(손실)	490	(50.3%)	2,609	(81.9%)	326	1,435	△ 462	△ 1,807	△ 72	△ 2,328	△ 333	272

- '24.3Q 출자지분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 약 290억원(기타이익, 휴세스-장부가치 0원)

👉 3Q 영업이익 894억원, 당기순이익 490억원,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준수한 실적 달성

| 전력 판매량 증가에 따른 실적 상승

(단위:GW)

구분		'24.3Q	'25.3Q	순증	증감률	비고
전력판매량(CHP)		2,097	3,646	1,549	73.9%	-
① 필수가동 발전기	화성	326	673	348	106.7%	'25.7월 지정
	동탄	769	1,175	406	52.7%	'22.7월(1기)+'25.7월(1기) 지정
② 신규 발전기	대구	89	437	348	391.4%	'24.9월 가동
	청주	-	478	478	-	'25.1월 가동

① 필수 가동 발전기 확대 지정

- 전력 성수기(하/동절기) 前, 6개월 주기로 전력 수급 및 계통 상황을 고려하여 필수 가동 발전기를 지정(전력거래소)
- 필수 가동 발전기로 지정되면 상시 가동하되 생산원가 수준으로만 보상 (단, SMP > 생산원가 → SMP 보상)
- 수원지역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의 발전기(화성/동탄) 지정, 지역의 전력수급 환경변화(계통 증설, 수요 감소) 전까지는 지속적 지정 전망
- 화성, 동탄은 高비용 발전기(생산원가 > SMP)로 필수 가동 발전기 지정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는 전력 이익 기여 無. 다만, CHP 가동 중 생산되는 열로 전체 이익에 기여

② 2024.3Q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대구/청주 CHP 가동

- 개별요금제로 전력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 있는 대구/청주 발전소의 가동 확대로 전력 이익 기여

| 연료비 정산금(미수금) 추이 및 전망

구분	'23	'24.1Q	'24.2Q	'24.3Q	'24.4Q	'25.1Q	'25.2Q	'25.3Q	'25.4Q(E)
미수금액	4,179	4,757	4,975	5,674	5,595	5,365	5,432	6,307	6,000↓
(증감)	-	(+578)	(+218)	(+699)	(-79)	(-230)	(+67)	(+875)	(-300↑)

- (3Q 미수금 증가) 열/전기 공통 연료비(CHP)의 원가 배분 회계처리에서 기인
 - (공통 연료비 회계처리) 열/전기 매출 비율(10년간 선형 가중평균 방식)로 배분. 연중에는 전기(前期)까지의 열/전기 매출 비율로 가(假) 배분 후 기말에 조정 → 열 매출이 적은 2·3Q 열측에 공통 연료비 과배분
- ('25.4Q 전망) 미수금 잔액 6,000억원 이하 전망, 전년 기말 대비 약 400억원 증가
 -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인상요인(도시가스 요금 인상 '24.8월, +6.6% ↑) 미반영 지속 영향
 - 재무제표 미표시된 미수금('22년 발생) 先 회수 중, 총 미수금(재무제표 미표시+표시)은 분명히 감소 중

| 제4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(안) : 구체적 할당량 미정

- (개요) 국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업종·기업별로 배분하는 계획, 4기는 배출 허용량 및 무상할당 축소 예정
- (3기: 2021-2025) 무상할당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, 잔여분은 이월 또는 판매('21~'24년 기간 중 판매액 116억)
- (4기: 2026-2030) 무상할당 축소로 배출권 이행 비용이 발생한 경우, 열/전기 가격에 원가로 반영되는 구조
 - (전기) 발전기별 발전원가 산정 시, 배출권 구매비용 반영(전력시장 규칙 개정, '22.1월 부) 되어 회수
 - (열) 열요금 총괄원가 산정 시, 배출권 구매비용 반영되어 회수

[참고] 연료비 정산금(미수금) 회계처리

- $\text{열요금} = \text{연료비} + \text{고정비(연료비 외 원가 + 적정이익)}$
 $\searrow$ 지출 연료비 100% 회수 보장
- (연료비 정산제) 열요금 조정 시차 등으로 실제 지출 연료비와 열요금을 통해 회수한 연료비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. 매년 시행, n년도 발생한 정산금을 n+1년 7월부터 최대 3년간 정산
- (연료비 정산금 회계처리) 요금 운영 경직성으로 미수금이 발생하고, 미수금의 발생·회수 과정에서 실적 변동성 ↑ 이에, 미수금 발생·회수 금액을 당기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연료비 정산금 회계처리를 도입하여 실적 변동성 완화

구분		연료비 정산금 회계처리 도입 후 (2023~ / 발생주의)	연료비 정산금 회계처리 도입 전 (~2022 / 현금주의)
재무제표 표시		O (비금융자산/부채)	X
징수 연료비 ^	발생	발생액을 당기 매출원가 차감 / 자산 계상	별도 회계조정 없음
지출 연료비	회수	회수액을 당기 매출원가 가산(매출 발생) / 자산 차감	
징수 연료비 v	발생	발생액을 당기 매출원가 가산 / 부채 계상	
지출 연료비	반환	반환액을 당기 매출원가 차감(매출 감소) / 부채 차감	
실적 변동성 (영업이익/당기순이익)		보장된 적정이익 안정적 발생	미수금 발생·회수에 따라 실적 변동

| 열요금 하한제 도입 및 시행

- (배경) 폐쇄된 시장에서의 사업자 초과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,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공공요금 안정화
- (열요금 고시 개정) 단계적인 하한선[1단계 (~' 26.6) 98%, 2단계 (~'27.6) 97%, 3단계('27.7~) 95%]] 도입.

【현행】 열요금 상한제	【개정】 열요금 상·하한제
지역 냉·난방 공급 세대 중 <u>50% 이상 공급하는 사업자 (난방공사) 요금을 기준요금으로 이를 다른 사업자가 준용.</u> <u>사업자별 요금 = 상한(기준요금 110%) 이내</u>	사업자별 요금 = 상한(기준요금 110%) ~ 하한(기준요금 95%) 이내

- (영향) 열요금 하한 신설 外 열요금 운영(산정, 미수금 회수 등)에 변화 無.
다만, 열요금 하한제 시행 시, 사업자간 열요금 비교로 열측 원가 개선 압력으로 작용 가능성 有

| 신종자본증권 상환(2025.9) 및 상환 예정(2028.9)

발행일	1차 콜옵션 행사	발행금액	금리	이자
2020.09.15	2025.09.15.(상환 완료)	2,500억원	2.778%	69.5억/年
2023.09.13	2028.09.13.(상환 예정)	2,500억원	5.060%	126.5억/年

- (상환 배경)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에 대규모 적자로 사채관리계약 부채비율 기준(400% 이하) 위반 우려로 발행, 부채비율 안정화로 유지 불필요
- (상환 영향) 신종자본증권 상환 후, 차입금으로 대체. 신종자본증권과 차입금의 회계처리 방법 차이로 부채비율 상승되나, 당기순이익 증가로 상당부분 영향 상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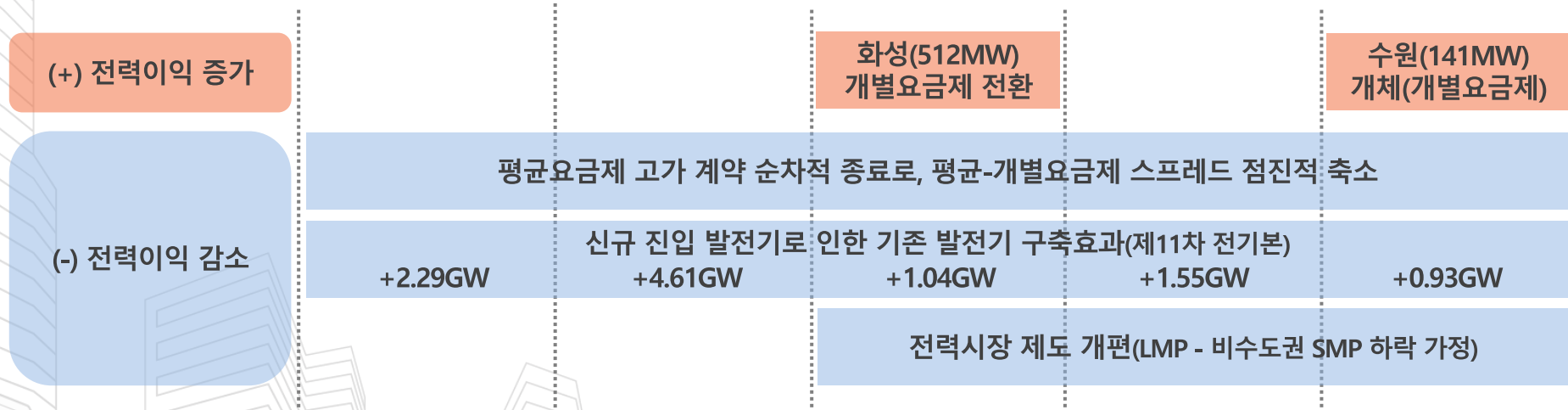
중장기 재무관리 계획(2025-2029)

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

(단위 : 억원, %)

구분	2025(E)	2026(E)	2027(E)	2028(E)	2029(E)
자산	84,791	81,935	80,015	80,299	79,972
부채	61,687	58,614	56,242	58,067	56,559
부채비율	267	251.3	236.6	261.2	241.6
영업이익	4,993	3,168	2,472	2,741	3,141
당기순이익	3,517	1,723	1,240	1,525	1,793

※출처 : 알리오(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)



☞ 전체 이익 규모는 감소하나, 부채비율 개선과 안정적 에너지 가격으로 미수금 감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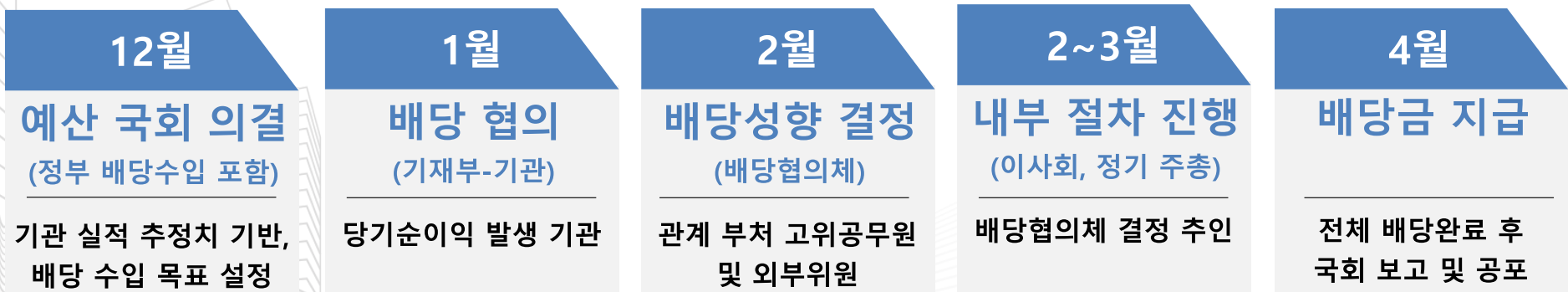
|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 결정

- (정부배당대상기업)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지역난방공사 등 40개사(국유재산법 시행령 '별표2')
- (배당결정권자) 정부(기재부)
- (시행근거) 「국유재산법」, 「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(기획재정부훈령)」

「국유재산법」 제65조의5(정부배당의 결정)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·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「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」 제6조(배당확정) 총괄청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정한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수준에 관한 사항을, 중앙관서의 장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배당협의체에서 협의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, 주주총회, 정부의 결산승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배당을 확정한다

▪ (결정절차)



| 정부의 배당 가이드라인

- (배당정책) 중장기 목표로 배당성향 40% 발표('14.12)
- (배당실적) 정부배당액 규모는 은행 3사 이익 규모에 따라 유동적, 평균 배당성향은 40% 수준 유지

배당시행연도	2021	2022	2023	2024	2025
평균 배당성향	36.92%	40.38%	39.87%	39.93%	39.72%
(한국지역난방공사)	(40.00%)	(43.00%)	(적자, 무배당)	(대규모 미수금, 무배당)	(21.40%)
정부배당액 규모	1조 4,396원	2조 4,541억원	1조 2,387억원	2조 1,322억원	2조 2,987억원
대상기관/배당기관	39개/22개	39개/19개	39개/19개	40개/17개	40개/21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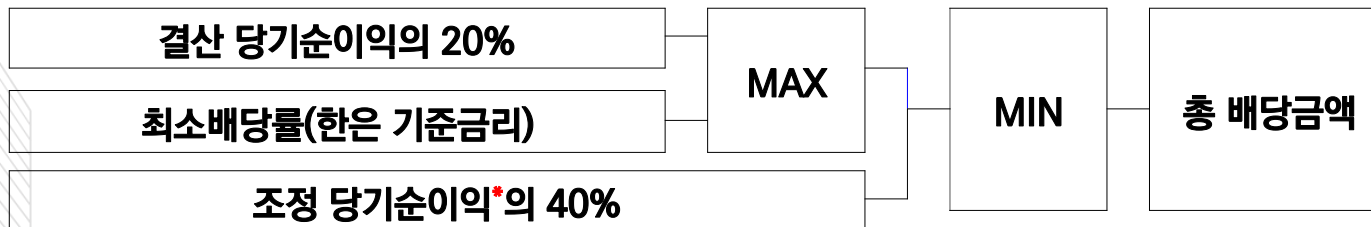
* 은행 3사(중소기업, 산업, 수출입) 배당규모가 정부배당 전체 규모 결정, 2025년 기준 정부배당(전체) 중 은행 배당액이 67% 차지

| 배당 결정 시, 고려 요인

- 기업의 이익 규모, 배당률, 배당성향
- 동종·유사 민간 업종 배당률 및 배당성향
- 기업의 경영여건(부채비율, 투자재원 소요 등)
- 정부 재정 여건
- ~~잉여현금흐름~~
 - ☞ 일반적으로 배당은 잉여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시행하나,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한 배당 결정은 현금흐름 미고려

| 자체 배당금액 산정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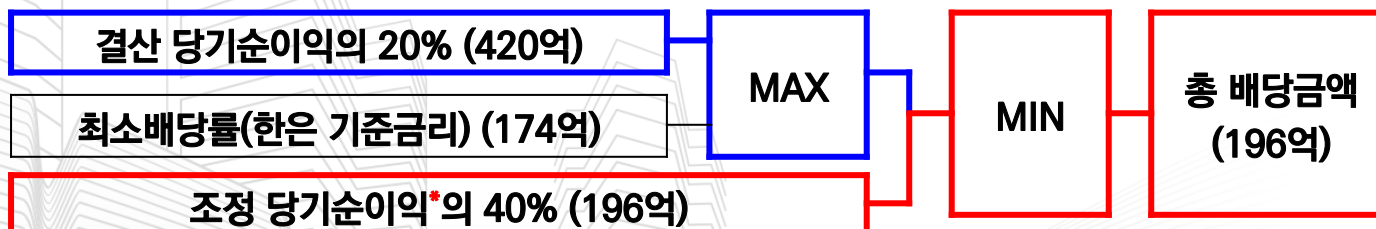
-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통해 당사 최초로 배당정책 수립·발표('24.12)



* 별도 당기순이익 - 연료비 미수금 순증액 - 신종자본증권 이자액

| 2025년 실제 배당(2024회계연도 실적 기반)

- 2025년 배당 금액은 총 449억, 주당 배당액 3,879원, 시가배당률 8.45%
- 자체 배당금액 산정 기준(196억)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당금액 결정(449억), 정부가 배당을 결정하는 정부배당대상기업으로 자체 수립한 배당정책의 이행력 제한



* 별도 당기순이익(2,101억) - 연료비 미수금 순증액(1,416억) - 신종자본증권 이자액(196억)

**실제 배당금액
449억**
(정부 결정·통보)

| 2025년 정부배당대상기업 배당 현황

- (배당실적) 정부배당금액 2조 1,322억원, 평균 배당성향 39.72%
- (배당결정) 당기순이익 발생기관 21개사, 배당성향 40%를 기준으로 기관별 특성 감안하여 가감
- 배당성향 40%가 원칙, 큰 폭의 축소를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 필요



기획재정부

보도자료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면의 시작

보도시점 2025.5.30.(금) 11:00 배포 2025.5.30.(금) 08:00

정부출자기관의 2025년 정부배당 2조 2,987억원으로 확정

-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평균은 39.72%로 '24년과 유사한 수준

올해 정부배당은 배당대상기관의 당기순이익 규모,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 및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였다.

'25년 정부배당 결과,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1개 기관이며, 나머지 19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발생,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다.

정부배당금액은 전년(2조 1,322억원) 대비 1,665억원 증가한 2조 2,987억원이며, 평균 배당성향(총배당금/당기순이익)은 39.72%로 전년(39.87%)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.

기관명	배당성향	비고
한국투자공사	90.00%	
대한송유관공사	90.00 %	
울산항만공사	58.00 %	
한국조폐공사	53.00 %	
부산항만공사	46.00 %	
인천국제공항공사	46.00 %	
한국부동산원	45.14 %	
한국도로공사	43.60 %	
한국주택금융공사	40.00 %	
농수산식품유통공사	40.00 %	
한국산업은행	37.80 %	
한국수출입은행	37.80 %	
한국자산관리공사	37.51 %	
인천항만공사	35.00 %	
중소기업은행	34.98 %	
한국농어촌공사	25.36 %	· 내부 유보 필요성(정부보조금 축소 대응)
한국지역난방공사	21.37 %	· 에너지공기업 재정 악화 감안
한국토지주택공사	20.00 %	·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, 배당성향 20%로 제한
한국전력공사	16.49 %	· 에너지공기업 재정 악화 감안
한국가스공사	16.00 %	· 에너지공기업 재정 악화 감안
주식회사에스알	(배당 제외)	· 내부 유보 필요성(철도면허 유지 조건 부채비율 150% 이하)
산술평균	39.72%	· 당기순이익 발생 21개사의 배당성향 산술평균